



건강한 걷기 문화... 가족 사랑과 지역민 유대감 'UP'

관련기사 2면

가을 정취가 가득했던 지난 9일, 예천군은 신도시패밀리파크 잔디광장에서
2024 예천군 가족사랑한마음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예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걷기대회는
건강한 걷기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 사랑과 지역민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月刊

정치와 사람

곧 독자들
결으로 !

예천 군민 2천여명 걷기 행사… 가족과 이웃들 가을 추억 만끽



잔디광장서 시작 1시간 걷기
완보기념품·경품 추첨 등 준비
가족과 네트 사진찍기 추억도
郡체육회장 “프로그램 더 준비”



〈1면에 이어〉김학동 예천군수와 강영구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다 함께 몸풀기 체조를 한 후 힘찬 출발 신호와 함께 본격적인 걷기행사가 시작됐다.

걷기코스는 패밀리파크 잔디광장에서 시작해 △범우리공원 다래터널 △어린이숲속놀이터 △실개천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3.5km로, 완주까지는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완주자 전원에게 완보기념품 증정, 걷기 행사 후에는 푸짐한 경품 추첨도 이어져 즐거움을 더했으며, 인생네트 가족사진 부스에서는 가족, 이웃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만들기 및 놀이체험, 댄스공연, 버블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특히 걷기코스 구간에 참가자 모두 춤을춰야 통과할 수 있는 댄스 이벤트존 등을 배치해 웃음과 재미를 더했다.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은 “도시와 녹지가 조화로운 호명읍 신도시의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만끽하며, 참가자 모두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주 기자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李지사, APEC 페루·미국 2개국 순방 활동

대통령 특별수행 자격으로 참가
문화·과학기술, 경제발전 모색
글로벌 협력 확대 다양한 활동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리마), 미국(로스앤젤레스)을 포함한 2개국을 순방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2025 APEC 차기 개최 도시로서 한국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문화·과학기술, 경제발전 방안 모색과 국제적 위상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 지사는 이번 순방의 첫 일정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2024 APEC 정상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 자격으로 참가한다.
이 지사는 이번 회의의 참가를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 및 국제 관계 분야에서 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 지사는 도의 주요 정책인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산업, TK신공항 등과 관련한 글로벌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TK통합이라는 지방정부 이슈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내년도 APEC 개최지인 도와 경주를 홍보하고 역사문화의 도시인 경주의 강점을 살려 경북관광의 르네상스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도화엔지니어링, 고려아연, 삼성물산, OCI 상사, 현대건설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남미 지역 산업 동향을 파악하며 도와 연관 산업 협력 등 APEC과 지역산업을 연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 대표단은 오는 17일 리마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고 18일에는 미국 내 물류기업인 NGL기업을 방문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기술을 트럭킹에 접목하는 현장을 직접 탐방한다.

이와 함께 미주상공인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WKBC USA),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대책 등을 찾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페루(리마)와 미국 2개국 순방은 2025 APEC 성공개최 및 도의 문화, 관광,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양육 친화적 분위기 함께 만들어요” 대구 남구가족센터는 9일 신나고 박터지는! 온가족 한 마음 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신나고 박터지는! 온가족 한 마음 운동회’는 지역사회의 양육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

경북 교육 현장 법률지원 서비스 호응

본청 법무부서 변호사 배치
유선 상담 통해 답변 제공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본청 법무부서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무행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서비스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교권 남용에 대한 법률지원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 청구 지원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민사 소송 지원 △행정업무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이다.
연간 약 60건의 서면 법률 자문 요청과 30여건의 온라인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며, 특히 법률 전문가의 유선 상담을 통해 일일 평균 3~4회 즉각적인 법률 답변이 제공되어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맞춤형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행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APEC 정상회의 홍보 슬로건 공모전 개최

표어 문구 1인 3건까지 응모
최종 심사 거쳐 총 11건 선정

APEC 준비지원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대국민 공모전, 함께해요! APEC 2025 KOREA'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 개최 의의 및 경주 개

최효과를 잘 나타내고 간결하면서 호소력이 있는 표어 문구(국문/영문 혼용 30자 이내)를 내용으로 1인 3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APEC 준비지원단은 독창성과 상징성, 효과성, 적합성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1차 실무부서 심사·2차 외부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1건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12월 20일(금)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1명에게는 소정의 시상금과 도지사상·경주시장상이 수여

된다.
최종 채택된 문구는 APEC 공식 엠블럼과 함께 정부·경상북도·경주시 APEC 정상회의의 주요 홍보매체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0년만에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한 경주에서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국민과 함께하는 APEC을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달성군, 대만 윤림현서 우호 교류 협력 MOU 체결

우수 성공 축제 등 자료 브리핑
문화관광교류 활성화 뜻 모아

달성군은 지난 7일 대만 윤림현(Yúnlín Xiàn, 雲林縣) 청사에서 윤림현 정부와 쌍방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관광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2024 달성군체육회 생활체육 우수사례 견학(11.5~11.8)’ 일정 중 대만 윤림현 청사 방문 및 간담회에서 달성군과 윤림현이 서로의 우수한 관광자원, 성공적 축제 등의 자료를 브리핑하고

성공사례에 공감하면서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하고 문화관광교류를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달성군과 대만 윤림현 정부(문화관광처장 진벽군陳壁君)는 7일 윤림현 청사에서 ‘양자간 인기 관광명소, 숙박시설, 특색있는 테마여행, 교통서비스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하며 관광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36만명 중 대만 관광객이 14만6천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40.5%)을 차지하고 있으며, MOU를 체결한 대

만 윤림현(雲林縣)은 면적 1,291㎢, 인구는 약 70만명 규모의 대만 남서부 현(한국의 시도단위)이다.
또한 현청 소재지인 더우류시(斗六)는 윤림현의 시(한국의 구군단위)로 면적 94㎢, 인구는 약 11만명이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MOU체결은 달성군의 훌륭한 관광자원과 문화행사 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전통시장 상인회, 시장 활성화 협약

역량강화 프로그램 인력 제공

군위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 11일 군위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단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장 상인회와 군위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단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연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한해 군위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단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동아리 봉사활동(소리새 열린공간팀, 효령 난타팀)을 군위전통시장에서 몇 차례 개최하였고, 군위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량 통제 및 인력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다.
협약으로 군위전통시장 상인회는 장소 제공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인력 제공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회장 손경찬 |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청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내년 하반기 대관 접수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2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공연장정기대관신청서접수를받고있다.
대관 대상시설은 대구문화회관 팔공홀(966

석)과 비슬홀(236석)이다. 신청은 향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 목적의 공연 작품에 한해 받으며 행사성, 홍보성, 종교(포교)

성, 정치성, 단순한 친목 도모성 공연(학예발표 포함)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관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무대시설 점검일), 자체기획 및 예술단 공연일자를 제외한 일정에 한해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황태용 기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경주시설공단, 청춘 만남 진행

경주시시설관리공단과 (주)풍산은 “우연이 우리를 만나게 하고 인연은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11월 12일 화리단지 일원 카페에서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진행했다.

양 기업 간 희망하는 남녀 4명씩 참가하여 커피 미션수행 및 릴레이 토크 등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해 경주시 관내 우수기업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행사 참여자는 “인연을 만나기 힘든 시기에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며 우연한 만남이지만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평생교육 지도자 수료

영덕군은 지난 12일 영덕하교에서 수료생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우리 지역 평생교육을 선도할 우수 인재 발굴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3일 개강해 총 15차시 45시간에 걸쳐 평생교육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22명의 수료생은 영덕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원으로서 마을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등 지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경주 내남분회, 환경 정비 활동

경주 (사)대한노인회 내남분회는 11월 11일 형산강 제방과 내남면 체육공원 일대에서 자연보호 및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 정비 활동에는 내남분회 회원 20명이 참여해, 영농 기간 동안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체육공원 내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공원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은우 분회장은 “깨끗해진 환경을 보며 마음도 상쾌해진다. 또한,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니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이·소나무숲 보호... 재선충 방제 총력戰

영덕, 민·관 95명 방제단 구성
가을 시점 맞춰 대대적 방제
일부 구간 앞으로 추가 점검

김광열 영덕군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의 진행 상황과 올해 하반기 방제 계획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 영해면 성내리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영덕군은 영덕대계를 비롯해 해양 휴양지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지만, 13년 연속 자연산 송이 생산량 전국 1위를 달성할 만큼 면적의 81%가 울창한 산림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자연산 송이는 영덕군의 주요 특산물로 영덕군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자원인 송이와 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올해 가을 강력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영덕군은 올해 가을 방제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방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95명의 전문 방제단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방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이 우화하는 내년 3월까지 군 예산비 10억 원을 포함한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개충 박멸과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 군수는 이번엔 살피면 영해면은 물론 축산면과 장수면 등 극심지로 꼽힌 지역, 특히 확산세가 가파른 축산면 경정리·영해면 대진리의 해안가

구간과 7번 국도 구간을 주목하며 앞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우리의 산림은 지역의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자원”

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도출해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포항시의회 공무원 간담회...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로”

창고형 대형유통시설 유치 동향
에코프로 염폐수 관련 현황 논의

포항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상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포스코기숙사(동촌생활관) 시내지역 이전·신축사업, 창고형 대형유통시설 유치 동향, 에코프로 염폐수 관련 현황,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및 운영계획,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계획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포스코기숙사 해도동 부지 선정 과정과 배경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추진시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토지용도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향후 우리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창고형 대형유통시설 유치 추진 현황과 향

후 계획 등을 청취하며, 창고형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유치 TF단 구성 등을 통해 사업을 원만하고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코프로 염폐수와 관련해 의원들은 염폐수 생태독성 기준 초과에 대한 포항시 차원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강조하고, 리튬, 코발트 등의 유해물질 지정에 대비해 지역 관련 업체와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북구보건소 이전신축 청사 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지정 등 주차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흥해 보건지소 등 기존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트라우마센터의 공간 활용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 지역내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극심하고, 남구 해안권역(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경북도, 산림청,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민간과 타기관에 대한 홍보강화와 개인



소유 임야의 수목 변경을 위한 주민 설득 등을 통해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일만 의장은 “의회와 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현안해결과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항시와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들은 간담회 후 대흥동 소재 무료급식소 만나미집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펼치고,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대해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빛나길센터를 방문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울진군 의원연구단체, 탄소 중립 실현 보고회

국내외 1회용품 줄이기 현황 분석
지역서 현황 줄이기 로드맵 제언

지난 11일, 울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울진의 미래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복남)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울진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실천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구성원인 김복남 의원을 비롯한 임동인·박영길·황현철 의원과 집행부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

하여 연구용역 수행 업체의 최종보고를 청취한 후, 올해 7월부터 추진한 연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용역수행 기관인 글통연구소에서는 울진군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국내외 1회용품 줄이기 현황을 분석하고 △다회용기 전환 지원사업 시행 등 울진군 1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울진의 미래를 위한 연구모임 김복남 대표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울진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구활동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소중한 터전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정수 기자

청송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실시

올해 전년 比 약 280톤 증가
매입품종 ‘삼광’과 ‘안평’ 대상

청송군은 지난 11일 청송읍 청운농장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읍면별 지정장소 37개소에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물량은 2,219톤(55,486포대/40kg)으로 포대와 톤백으로 구분하여 매입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80톤(7,018포)이 증가한 물량이다.

매입품종은 ‘삼광’과 ‘안평’으로 매입대상 품종과 다른 품종을 출하하거나, 타 품종 혼합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므로 출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입대금은 중간정산금(일반벼 4만원/40kg)을 매입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유례없는 폭염과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영농자재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 좋은 쌀을 생산해 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쌀값 하락이 우려되지만 쌀 생산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울진 왕피천공원, 대형생물 전시

울진군 왕피천공원 내 곤충여행관에
서는 다양한 대형생물들을 확대 전시한다.

본관 2층에는 특이한 애완용 생물로 주목받는 타란툴라와 전갈을 비롯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슴벌레,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친환경·저비용으로 사육 가능한 밀웜, 약용과 애완곤충으로 인기 있는 장수풍뎅이의 애벌레를 전시해 아이들의 다양한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냥 징그럽다고 생각되는 생물을 좀 더 꼼꼼하게 관찰하고 애벌레들을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 다양한 생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과 생물영상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거울방을 비롯한 10,000여마리의 다양한 실제 세계곤충표본과 살아있는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태 교육적인 공간연출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전시관이다.

송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왕피천공원은 캐비닛과 아쿠아리움, 안전체험관, 동물농장 등 많은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목공예, 도자기, 소금, 다도, 전자계) 활동이 있어 주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면 가족여행으로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친절 교육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12~13일 양일간 김진영 공공소피치 아카데미 강사의 강연으로 총 4회 진행하였으며, 현장근로자 230여 명이 고객응대 방법, 커뮤니케이션 스킬, 스트레스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김복조 이사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며, 변화하는 포항시에 걸맞은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친절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정기적인 고객 만족 서비스 향상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구미, 시민수강생 작품 전시

구미시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동문화복지회관 전시실에서 '2024년 정기과정 수강생 종합작품전시회'를 열어, 시민들의 창작 열기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발효&흑초, pop&수채캘리그래피, 보태니컬아트, 플라워스타일링, 민화, 섬유민화, 퀼트, 수채화, 손뜨개, 문학의 숲, 노인미술지도사 총 11개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 300여 점이 전시되며, 수강생들이 직접 전시 공간을 꾸며 전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유영익 문화예술회관장은 "이번 전시는 정기과정 수강생들이 배운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학습의 성과를 공유하며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재구문경향우회, 고향 기부금

문경시는 11월 12일, 재구문경향우회 주대중 회장과 임원진이 고향 문경의 발전을 위해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대중 회장은 1인당 연간 최대 기부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수석부회장 고재락, 권영호, 사무총장 정석래 씨가 각각 3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어 수석부회장 임병태, 이사 김기원과 김은제 씨는 각각 200만 원을 부회장 김진영과 이사 백승현 씨는 각각 100만 원을 기부했다.

주대중 회장은 "문경시 발전을 위해 회장단과 임원들이 뜻을 모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많은 향우회원들이 고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도시 특례면적 완화로 균형발전 강화를”

구미·원주·아산 공동건의문
대도시 특례 기준 5백㎢ 제안
하향 조정 요청 행안부 제출

구미시가 원주시,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천㎢에서 5백㎢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

구자근(구미시장)·강병구(구미시장) 국회의원은 11월 12일 송기현·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단서조항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인면서 면적 1천㎢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고 규정하여 지역 주도

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미, 원주, 아산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천㎢에서 5백㎢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을 요청했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미시는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구미, 원주, 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영주 기자



김천 '황성공원' 자연친화 공간 새단장

2022년 착공 후 2년 후 준공식
대형광장·천수·체험시설 등

김천시는 지난 11월 12일 지좌동 아주아트빌 아파트 인근에 근린공원을 조성해 김충섭 김천시장, 지역구 시의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은 아주아트빌 아파트 및 배다리 인근 지역 이용자 등 구도심 지역주민

에게 힐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대형광장, 천수시설(계류시설, 바닥분수), 체험시설(맨발걷기길, 편백나무숲, 수국원, 장미원), 주차장(100면)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자칫 실효성 없었던 공원사업을 구시가지 내 주민 편의와 부족한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19년 공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면적 296,564㎡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본 사업은 본격적으로 예산 258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해 2022년 공사 착공 후 2년 여간의 기간 끝에 2024년 이날 준공식을 맞이하게 됐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천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실효성 전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지좌 황산공원이 많은 시민들이 편안히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 취약층 콘텐츠 제작 교육

문경시는 지난 11일 평생학습관(구 여성회관)에서 지체장애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 촬영·편집전문가 과정을 개강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학습자들에게 콘텐츠 제작·편집 관련 기술의 학습을 통해,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과 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과정에서는 촬영 장비 사용법,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의 활용, 콘텐츠 기획과 제작의 실습 등을 다루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 학습자들은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 새로운 직업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 교육지원과장(유한규)은 "장애인 학습자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과정은 장애인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경시는 앞으로도 평생학습 기회를 다양화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학습자들이 전문성을 갖추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경시 평생학습관의 노력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경시는 2022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보편적인 참여 기회제공을 통해 평생학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의성군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스템' 선정

자체 바우처 사업 추진
노인 의료·돌봄 관련 도움

의성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스템 시범 운영'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스템 시범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자체 바우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기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활용 가능성, 예산 확보 여부, 서비스 구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성군을 포함한 전국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군은 우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중 트래블돌봄 △반찬지원 △대청소 △복지이용대여 4개 서비스에 대하여 시범운영 후 2026년에 전체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상주시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실시

3일간 총 516명 참석
시정 설명과 강사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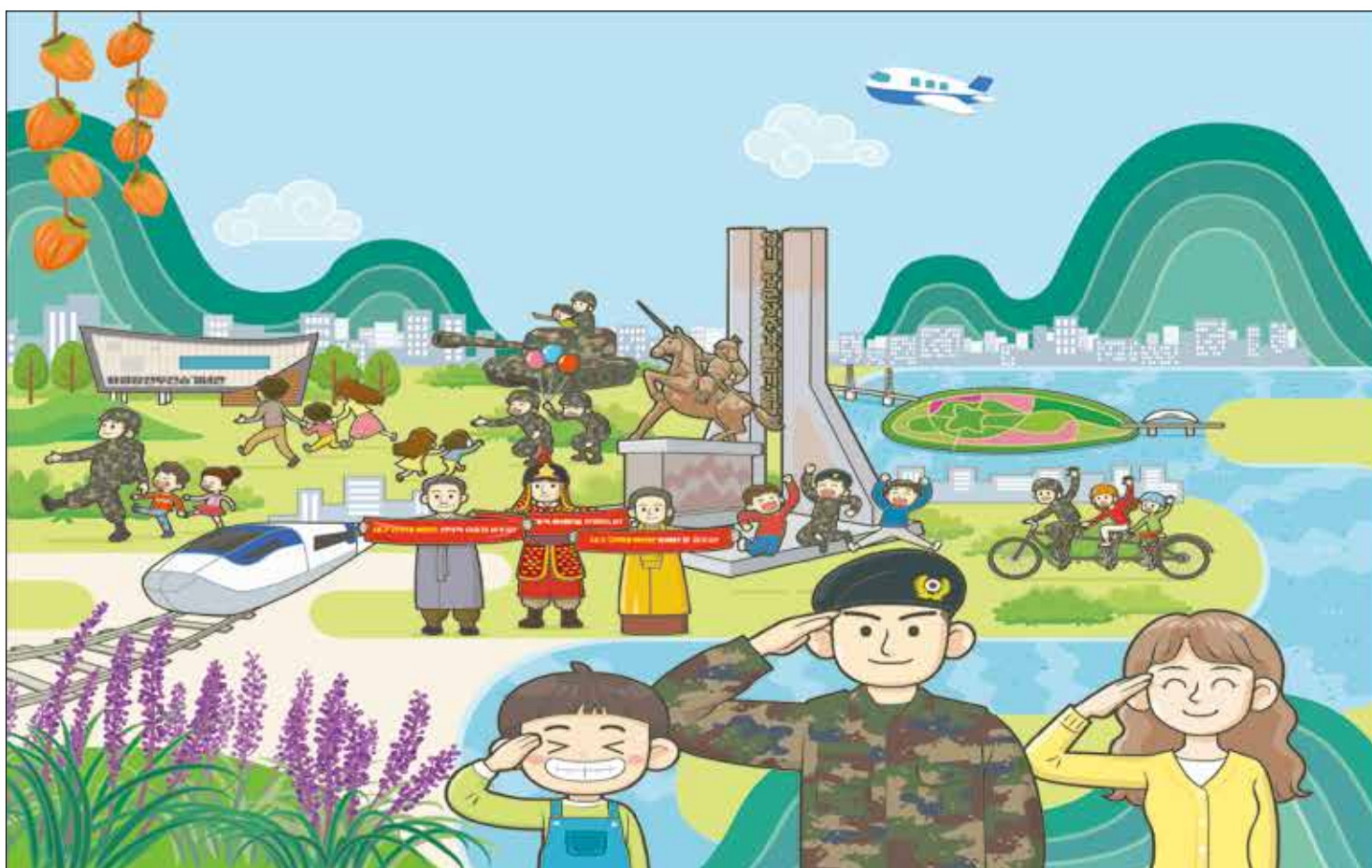
상주시는 11~13일까지 3일간 청소년수련관 외 3개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통장의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3일간 총 516명의 이·통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시정현안 설명, 2부는 전문가의 특강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이·통장이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안동 도산 지사협 교육

안동시 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월 6일 도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2024년 한 해의 주요 활동을 돌아보고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산면의 첫 행복금고 특화사업인 '도산면 품은 고등어'와 행복금고 모금행사 등 다양한 활동 성과를 나눴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천 로타리클럽, 집수리 봉사

국제로타리 3630지구 예천 로타리클럽과 같이의 가치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천읍 소재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예천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모은 330만원의 봉사금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직접 재능기부로 참여한 봉사활동으로, 중증 장애가 있는 부부 가정에 도배·장판과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했다. 특히, 2003년 예천읍에서 결성된 청년봉사단체 "같이의 가치회" 회원들이 24명이 함께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금북장학, 봉화 장학금 전달

(재)금북장학재단은 지난 12일 봉화군청을 방문해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금북장학재단은 ㈜금북주 창사 50주년을 2007년에 설립되어 학술연구 활동, 청소년 선도사업, 체육특기 학생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금북주의 김일환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기부로 누적 기부금이 2천만 원에 달한다.

장학기금을 전달한 김일환 금북주 대표이사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큰 꿈을 꾸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번 장학금이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탁 취지를 밝혔다.

영양군 첫 '사회복지박람회' 성황리 개최

기관 단체들 참여 서비스 소개
개막식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다양한 사회복지 박람회 지속"

영양군은 지난 2024년 11월 12일,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오도창, 민간위원장 김길동)가 주관하는 제1회 영양군 사회복지박람회를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영양군 내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정보를 소개했으며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정신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오전 10시 4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착한가게 현판 전달, 개막 퍼포먼스와 다양한 먹거리 판매 부스 및 체험·홍보 부스 48개를 운영했으며 이날 판매 수익금은 영양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박람회와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양군은 지난 12일 제1회 영양군 사회복지박람회를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영양군사회복지박람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복지 정보를 제공

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행사였다. 권윤종 기자

봉화군,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 정기총회

국토부 등 찾아 현안 전달
"총회로 건설 발판 마련을"

봉화군은 13일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에는 박현국 봉화군수(협의회 2대 회장)를 비롯해 강원도와 경상북도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추진협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내년도 협력 안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도 주요 협력 안전으로는 지역구 국회의

원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 10개 회원 시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 홍보, 전국 유력매체 방송 광고 시행, 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챌린지 추진 등이 협력사업으로 채택됐으며, 이외에도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협의회 회장시군인 봉화군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하며 지난 10월 국토부 제2차관과 국토연구원 방문해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시급함을 전달했고, 국회차원의 협력을 위해서도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국회의원)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위원실(권영진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광범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2대 회장)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0개 시군은 그동안 고속도로 건설이 늦어지며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정기 총회가 지역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는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6개 시군(양구,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경상북도 4개 시군(봉화, 영천, 청송, 영양)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7월 출범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에서 경상북도 영천을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총 309.5km)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상기기자

안동시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안동시의회는 12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47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는 필수 교육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인 정인자 강사를 초청해 '고위직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경도 의장은 교육에 앞서 "직장 내 4대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건전한 성인지 가치관 정립이 최우선 과제"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폭력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영주 기자

영주시 '24기 시민카운슬러대학 수료식'

올 해 총 3천 500여건 발견
등산로 스마트 안심 둘레길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2일, 2층 회의실에서 30명의 수료생이 참석한 가운데 '24기 시민카운슬러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로 24기를 맞은 시민카운슬러대학은 '청소년멘토지도자·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상담 입문과정이다.

이번 시민카운슬러대학은 지난달 12일부터 매주 화·수·목요일 3시간씩 총 10회차에 걸쳐 지역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계회복 △미술치료를 통한 자기이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 △느린 학습자 사회성 향상 △집단상담을 통한 자기성장 △청소년 성문화와 성보호 △TCI 기질검사를 통한 도박 이해 △ADHD 내 아이의 보석 찾기 △청소년 문화 이해 크리에이터 △청소년 이해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기술 등 마음챙김 프로그램으로 구



성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한 이○○(휴천동, 47세) 씨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고민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며, "나 자신도 한층 더 마음을 챙기게 되어 정말 유익했다"고 말했다.

김금주 소장은 "교육에 열정을 다해 참여해 주신 교육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언제든지 국번없이 1388(또는 ☎054-634-1318)로 전화하면 된다. 전상기기자

(사)하회마을보존회 '세시풍속 김장나눔' 행사

회원들 주민들 참여 김치 담그고
300포기 풍천면 취약 가정 기탁

(사)하회마을보존회는 16일 11시부터 14시까지 하회마을의 총효당 일대에서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시풍속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11주년 기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에서 개최하는 것에 의미를

연계하고 있다. (사)하회마을보존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송영주 기자



예천군, 국립의대 유치 범군민단체 간담회

"공공의료 인력 양성·병원 확충"

예천군은 13일 오후 4시 예천군북학커뮤니티센터에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범군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강영구 군의장과 군의원, 도기욱 도의원, 안병윤 경북

도립대학교 총장과 관내 기관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태주 총장은 "경상북도는 의료자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해 주민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영주 기자

영주시, 5년 이하 공무원 대상 현안사업 교육

첨단배어링산업, 영주호 개발 등
현장 교육 통해 주요 사업 이해

영주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5년 이하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하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처음 실시한

이 교육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시행됐다.

교육은 시의 전반적인 현안 개요 설명으로 시작되어, 하이테크메어링 기술센터와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영주 첨단메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산업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가자들은 풍기인삼 소공인들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견학하고, 순흥저수지(배점저수지) 데크로드와 폐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여우골 글램핑장을 탐방했다.

또한, 영주호를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영주호개발과의 주요 사업을 부서장이 직접 소개하며, 영주호 관광순환 보행교 조성 사업 등의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영주 어드벤처 캐슬과 천

지인전통사상체협관의 웹툰 방탈출 테마파크 체험이 포함되어,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현장감 있는 학습이 이뤄졌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구상하길 기대한다"며,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영주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기기자

대한민국 노후날씨

언제나 항상 맑음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